

'60세 이상'도 신속항원 확진시 '일반관리군' 전환

검사받은 병원에서 전화상담·처방 한번에 집중관리군은 비대면 진료 안돼 전환 요구

앞으로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바로 시작된다. 집중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관리군으로 전환되면 전화 상담과 처방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래 60세 이상·면역저자자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돼 집중관리의료기관의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약 처방을 원하면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지만,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박항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 있거나 투약하는 약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분들을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는 검사·확진 이후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해 사후관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다만 본인이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

인을 거쳐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집중관리군으로 변경하면 된다. 60세 이상·면역저자자의 일반관리군 배정은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며, 이전에 확진된 경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 가능 역량은 전국 1088개 집중관리의료기관 36만 6000여명이다. 현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27만1851명으로, 9만명 이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박남진기자

바닥난 코로나 생활지원금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검사

예산 소진, 곳곳에서 지급 중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재정 문제로 축소되면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한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검사 기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생활지원금 축소가 확진 시 일을 쉬기 더 어려워졌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돼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급이 이미 중단된 지자체가 많아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경기 남양주시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확진자 폭증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확진자들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직전 생활지원금은 7일 격리 시 1인 기준 24만4000원, 2인은 41만 3000원이었다.

전날도 5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남양주시 역시 올해 국·도·시비 매정으로 편성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9억3000여만원(시비 9억9000만원 포함)이 일찌감치 모두 소진돼 1월 12일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73만 시민의 20%가 넘는 15만5000여명이 확진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통해 생활지원비 17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필요한 수준의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기는 어려워 확진자가 늘수록 지급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규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편성할 만큼 유행 정도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들도 남양주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확진자의 직장에 제공되던 유급휴가 지원비까지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한정되고 금액도 하루 4만5000원으로 축소돼 '확진 판정을 받으면 회사에도 손해'라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차피 다 걸리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 회사의 눈총을 받느니 그냥 약을 먹고 버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남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재택치료 도입 후에 감염되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 대신 연차를 내고 그냥 버티려는 분위기까지 생겼다"라며 "작은 회사에서 계속 몇 명씩 확진자가 나와 업무나 인건비에 부담이 생기니까 이제 걸렸다 싶으면 그냥 버티거나 휴가를 내고 쉬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격려자 생활지원비 축소와 지급 지연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검사 여건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선욱기자



"일하다 다친 배달기사 모두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어야"

배달기사들이 월 소득 및 종사 시간과 상관 없이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달기사 독립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배달기사도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봐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라이더 유니온에 따르면 배달기사의 상당수는 부업 라이더다. 이들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정한 전속성 기준인 월 소득 116만4000원 이상 또는 종사 시간 월 97시간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배달기사들이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보험료는 냈는데 정작 사고가 나서 다쳤더니 보상은 못 해주겠다고 한다"며 "특수한 노동자로 분류해, 특수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해주겠다고 도입한게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법 특례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면서 근로자 개념이 노무제공자로 확대됐다. 사업 형태 및 근로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기존 법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산재보험법에 서로 근로자 개념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해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기사로 일하는 주모씨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 전성 이전에는 대부분 라이더들이 한 업체에 소속돼 일했기 때문에 전속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건 배달은 한 번에 한 제품만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오유니기자

'붕괴 참사' 학동4구역 9개월만에 공사중지 해제

동구청, 감리자 지정 '안전성 검토 등 일정 조건 충족 후 승인 예정'



광주 동구청은 붕괴 참사 현장인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 내렸던 해제공사 중지명령을 9개월 만에 해제했다. 동구청은 23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내려진 건축물 해제공사 중지명령을 지난 17일 조건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해 6월 9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틀 뒤 감리자 공백과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

다. 이후 동구청은 지난 8일 조합 측이 감리자 계약 체결서와 함께 해제 중지명령을 요청하자, 내부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단,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 4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에야 실제 착공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4가지 선결조건은 ▲철거업체 선정 뒤 안전관련 해체관계자 회의 개최 ▲해체감리자

검토 확인서 ▲현장 배치 건설 기술인 관리 조직도·도급 계약서·상주감리계약서·산재보험가입증명서 확인 ▲공사장 동영상 녹화 위치도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사 중지 해제는 감리자가 선정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그러나 안전성 재검토와 해제 업체 선정, 부지 내 이주와 보상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철거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판 결과와 시공사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학동4구역에 대한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참사 추모 공간 조성 논의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아무리 과정이 적법했더라도, 시민의 정서와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5층 규모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기동취재본부

목줄 안 한 개가 놀이터서 8세 아이 물어...견주 입건

피해자, 엉덩이 등 여러 곳 물려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던 개가 8세 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해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과

실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놀이터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개를 산책시키다 근처를 지나가던 B(8)군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엉덩이를 비롯해 여러 곳을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경과를 지켜본 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